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6.28

인플레, 콘택트 관련 종목 중심 강세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출발. 특히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및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
- 더불어 나이키 등 콘택트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 개선 지속 가능성이 부각되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 반면, 언택트 관련 종목군은 부진하거나 관망
- 결국 금융, 소비재, 여행 등 경기 민감주 및 콘택트 관련주가 상승하며 다우 지수 강세를 이끌었으나, 언택트 관련 기술주가 부진해 나스닥은 하락하는 등 혼조 마감
- 다우 +0.69%, 나스닥 -0.06%, S&P500 +0.33%, 러셀2000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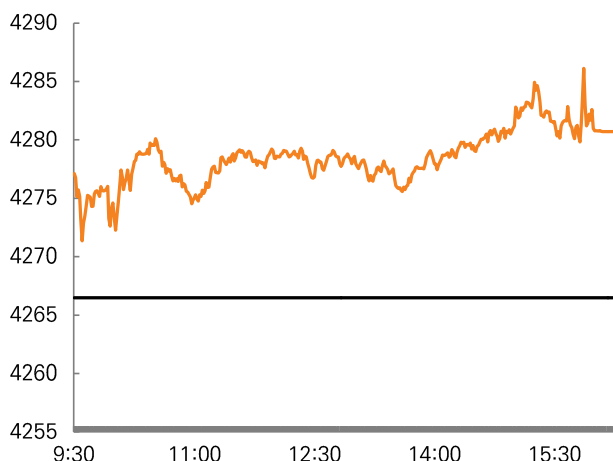
특이 종목

- 금융주는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로 배당 증액 및 자사주 매입 기대 부각 속 강세
- 나이키(+15.53%)는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과 중국에서의 매출 증가 등으로 급등
- 중고차 판매 업체인 카맥스(+6.67%)는 칩 부족 장기화로 실적 개선 기대 부각 속 급등
- 페덱스(-3.87%)는 양호한 실적 불구하고 가이드언스 제공하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급락
- 버진 갤럭틱(+38.87%)은 미 연방 항공국(FAA)로부터 상업용 라이선스 받자 급등
- 마이크론(+1.80%)은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 심리 유입되며 상승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60%, MSCI 신흥 지수 ETF는 0.8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7.5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6% 상승. KOSPI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증시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및 국채 금리 상승 등에 의한 금융주와 함께 콘택트 관련 종목군이 강세를 보인 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한국 증시와 관련이 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이 부진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코스피 3,300 포인트 시대 개막을 뒤로하고 차익 실현 욕구를 높일 수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302.84	+0.51	홍콩항생	29,288.22	+1.40
KOSDAQ	1,012.13	-0.05	영국	7,136.07	+0.37
DOW	34,433.84	+0.69	독일	15,607.97	+0.12
NASDAQ	14,360.39	-0.06	프랑스	6,622.87	-0.12
S&P 500	4,280.70	+0.33	스페인	9,095.00	+0.23
상하이종합	3,607.56	+1.15	그리스	907.76	-0.23
일본	29,066.18	+0.66	이탈리아	25,510.50	+0.3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5월 미국 개인 소득, 지출 지표가 발표됨. 요약하면 상품 소비는 계속 약해지고 서비스는 강화 되었으며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저축률은 12.4%를 기록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 5월 개인 소득은 지난달 발표(mom -13.1%)나 예상(mom -2.6%) 보다 개선 된 전월 대비 2.0% 감소. 가처분 소득도 지난달 발표(mom -14.6%) 보다 개선된 전월 대비 2.3% 감소에 그침.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달 발표(mom +0.9%)나 예상(mom +0.3%)을 하회한 전월 대비 변화 하지 않음. 개인 저축률은 지난달 14.5% 보다 줄어든 12.4%로 발표.

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와 부품 지출은 지난 4월 2.8% 증가에서 8.5% 감소로 전환. 가전제품 구매도 4월 1.4% 감소에서 5월에는 3.4% 감소. 비 내구재 지출은 2개월 연속 0.5% 감소. 반면, 레저 서비스 지출은 3.2% 급증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외식업과 호텔업 지출은 1.0% 증가해 최근 5개월 중 4개월 강세를 보임

PCE 디플레이터는 지난달 발표(mom +0.6%)나 예상(mom +0.5%) 보다 낮은 전월 대비 0.4% 증가에 그쳤고 전년 대비로는 예상과 부합한 3.9% 상승.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지난달 발표(mom +0.7%)는 물론 예상(mom +0.6%)을 하회한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대비로도 예상(yoy +3.5%)을 하회한 3.4% 상승에 그침

내구재 가격은 1.6% 상승했고 비내구재 가격도 0.1% 상승. 서비스 가격은 두 달 연속 0.5% 상승에 이어 0.3% 상승 했으며 음식료 가격은 0.4% 상승에 이어 0.3% 상승을, 에너지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 그 외 저축률은 4월의 14.5%에서 5월에는 12.4%로 감소. 이 비율은 작년 4월에 3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음

대체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레저, 호텔 등 콘택트 관련 품목들을 비롯해 일회적인 병목 현상과 관련된 품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끌어 올린 것으로 추정.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으나, 연속성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여전히 “인플레 급등은 일시적이라는 타당할 만한 이유가 있고,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온건한 통화정책은 지속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 매파 성향의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또한 이날 “높은 수치의 인플레이션은 내년에는 완화 될 것이다” 라고 언급. 물론 로젠그렌 총재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했으나 영향은 제한.

이렇듯, 주요 경제 지표 수치 및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금융주 및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임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강세 Vs. 기술주, 비트코인 관련주 부진

웰스파고(+2.66%), JP모건(+1.01%), BOA(+1.94%) 등 투자은행은 물론 PNC 파이낸셜(+2.21%), US 방코프(+1.71%) 등 금융주는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통과와 그에 따른 배당 증액 및 자사주 매입 기대에 힘입어 상승. 더 나아가 국채금리 상승도 긍정적인 영향. 나이키(+15.53%)는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 결과와 중국에서의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급등. 더불어 콘택트 환경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 또한 우호적. 중고차 판매 업체인 카맥스(+6.67%)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와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이어지며 향후 흐름도 낙관적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인 영향. 오토 내이션(+2.41%)도 동반 상승. 페덱스(-3.87%)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이드언스 제공하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급락. 전자상거래 물류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여부 불확실성이 제기

버진 갤럭틱(+38.87%)은 미 연방 항공국(FAA)로부터 상업용 라이선스 받자 급등. 넷플릭스(+1.74%)는 4분기에는 가입자 증가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평가 속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마이크론(+1.80%)은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 심리 유입되며 상승. 아마존(-1.38%)은 언택트 환경 약화로 실적 개선세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국채 금리 상승을 이유로 MS(-0.63%), 애플(-0.23%), 페이스북(-0.53%) 등 대형 기술주 및 브로드컴(-1.67%), 인텔(-0.28%) 등이 부진. 코인베이스(-2.34%), 마이크로스트레지(-5.47%), 테슬라(-1.17%), 엔비디아(-0.91%), 스쿼어(-1.72%) 등 비트코인 관련주는 3만달러 초반까지 하락하자 매물 출회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19%	대형 가치주 ETF(IVE)	+0.71%
에너지섹터 ETF(OIH)	-1.14%	중형 가치주 ETF(IWS)	+0.77%
소매업체 ETF(XRT)	+0.48%	소형 가치주 ETF(IWN)	-0.27%
온라인소매 ETF(IBUY)	-0.05%	대형 성장주 ETF(VUG)	+0.17%
금융섹터 ETF(XLF)	+1.21%	중형 성장주 ETF(IWP)	+0.53%
기술섹터 ETF(XLK)	-0.12%	소형 성장주 ETF(IWO)	+0.2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9%	배당주 ETF(DVY)	+0.85%
인터넷업체 ETF(FDN)	+0.02%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0%
리츠업체 ETF(XLRE)	+0.7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4%
주택건설업체 ETF(XHB)	+0.64%	미국 국채 ETF(IEF)	-0.21%
바이오섹터 ETF(IBB)	+0.84%	하이일드 ETF(JNK)	+0.10%
헬스케어 ETF(XLV)	+0.46%	물가연동채 ETF(TIP)	+0.10%
곡물 ETF(DBA)	-0.06%	Long/short ETF(BTAL)	-0.21%
반도체 ETF(SMH)	-0.39%	모멘텀 ETF(MTUM)	+0.2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8.03	+0.47%	+6.66%	+7.31%
소재	516.09	+0.04%	+2.11%	-5.85%
산업재	865.68	+0.22%	+3.04%	-2.44%
경기소비재	1,424.04	+0.31%	+2.62%	+2.95%
필수소비재	719.22	+0.80%	+1.85%	-0.86%
헬스케어	1,466.12	+0.46%	+2.01%	+2.30%
금융	614.75	+1.25%	+5.28%	-2.41%
IT	2,550.53	-0.15%	+2.35%	+5.41%
커뮤니케이션	264.16	+0.09%	+2.36%	+2.32%
유틸리티	325.54	+1.13%	+0.66%	-0.77%
부동산	279.71	+0.64%	+1.30%	+4.2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본격화 되는 실적 시즌

MSCI 한국 지수 ETF는 0.60%, MSCI 신흥 지수 ETF는 0.8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27.5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6% 상승. KOSPI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확산되자 중국과 더불어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가 유입되는 등 수급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승. 특히 코스피의 경우 반도체, 금융주 등을 중심으로 3,300pt 시대를 개막. 다만, 일부 종목군의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등 차별화가 뚜렷하게 이어진 점도 특징.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국채 금리 상승 등에 의한 금융주와 함께 콘택트 관련 종목군이 강세를 보인 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그렇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8%, 다우 운송지수가 0.04% 하락했고 러셀2000지수가 0.03% 상승에 그치는 등 위험 자산 선호심리 강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코스피 3,300 포인트 시대 개막을 뒤로하고 차익 실현 욕구를 높일 수 있기 때문.

한편, 미 증시는 금융주와 소비재가 강세를 보였지만 대형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이 부진. 더불어 콘택트 관련 종목군은 강세를 보인 반면, 언택트 관련 종목군은 부진. 이를 감안 한국 증시 또한 업종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이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미국 5월 개인 소득은 지난달 발표(mom -13.1%)나 예상(mom -2.6%) 보다 개선된 전월 대비 2.0% 감소.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달 발표(mom +0.9%)나 예상(mom +0.3%)을 하회한 전월 대비 변화하지 않음

PCE 디플레이터는 지난달 발표(mom +0.6%)나 예상(mom +0.5%) 보다 낮은 전월 대비 0.4% 증가에 그쳤고 전년 대비로는 예상과 부합한 3.9% 상승.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지난달 발표(mom +0.7%)는 물론 예상(mom +0.6%)을 하회한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대비로도 예상(yoy +3.5%)을 하회한 3.4% 상승에 그침

6월 미시간대의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82.9)는 물론 예비치(86.4)를 하회한 85.5로 발표. 기대지수가 예비치(83.8)을 하회한 83.52로, 현재 평가지수는 예비치(90.7)을 하회한 88.6으로 하향 조정. 6월 후반기 소비 심리 둔화가 본격화 되었는데 저소득층 중심으로 부진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상승한 국제유가 Vs. 하락한 곡물

국제유가는 OPEC+ 회담을 앞두고 추가적인 감산 축소 규모가 100만 배럴보다 적은 50만 배럴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지속되며 상승. 더 나아가 미국과 유럽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어 소비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비록 상승세가 지속되며 가격 부담이 여전하지만 이러한 호재성 재료에 기반한 상승세는 7월 1일 OPEC+ 회담 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

달러화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었으나 고용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 파운드화는 미 연준이 영국 영란은행 보다 더 빠른 시일안에 매파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약세.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2%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호주달러, 캐나다 달러 등은 달러 대비 강세를, 브라질 헤알화 등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혼조 양상이 지속

국채금리는 PCE 디플레이터가 안정적으로 발표되자 상승.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연준의 테이퍼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다만,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 급등은 일시적이며 여전히 고용 불안은 심각하다고 언급해 금리 상승을 제한

금은 인플레이 압력 완화 기대로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인프라투자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통과 불 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불안감에 혼조 마감. 곡물은 주요 작황지에 1~2.5인치의 비가 내리는 등 충분한 수분 공급이 진행 되자 하락. 이는 작황에 호재이며 공급 증가 기대를 높일 수 있기 때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1%, 철근은 1.33%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4.05	+1.02	+3.87	Dollar Index	91.851	+0.04	-0.41
브렌트유	76.18	+0.82	+3.63	EUR/USD	1.1935	+0.03	+0.60
금	1,777.80	+0.06	+0.50	USD/JPY	110.75	-0.11	+0.49
은	26.126	+0.14	+0.45	GBP/USD	1.3879	-0.31	+0.50
알루미늄	2,486.00	+1.89	+4.23	USD/CHF	0.9173	-0.07	-0.47
전기동	9,413.50	-0.06	+2.93	AUD/USD	0.759	+0.09	+1.48
아연	2,907.50	-0.29	+3.01	USD/CAD	1.2292	-0.26	-1.39
옥수수	519.25	-3.13	-8.30	USD/BRL	4.9343	+0.40	-3.06
밀	640.75	-1.73	-3.76	USD/CNH	6.4612	-0.15	-0.01
대두	1,269.75	-1.70	-3.29	USD/KRW	1127.70	-0.63	-0.41
커피	157.80	+2.87	+3.85	USD/KRW NDF1M	1127.56	-0.40	-0.6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24	+3.22	+8.60	스페인	0.479	+5.10	+2.60
한국	2.102	+2.70	+6.70	포르투갈	0.461	+5.00	+2.90
일본	0.047	-0.90	-1.20	그리스	0.846	+2.10	+3.50
독일	-0.155	+3.30	+4.50	이탈리아	0.922	+5.80	+5.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